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3 No. 6, pp. 9-14, June 2018
www.ksci.re.kr
https://doi.org/10.9708/jksci.2018.23.06.009

# Writing education using Characteristics at hypertext

Hee-Young Lee*

##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latest progress in digital media and technology affects the writing education environment. In the contemporary era, collecting numerous pices of information online, and arranging them to create new knowledge is important. There is also a need to seek new methods for writing education to stay in tune with the times. To that end, this paper suggests an open writing model using hypertexts. This writing model consists of a total of five stages, which are use of information, compilation of information, open mutual discussion, search of additional information and writing to recreate knowledge. The final outcome of such writing is writing using footnotes. By describing the gist of the keyword and adding numerous footnotes, such writing opens up an infinite possibility of re-creating information into new knowledge. This method can help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ccustomed to the digital society to proactively use information and improve multi-disciplinary communication skills required today. This author applied such a model to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and found that more than 82% of the students were satisfied. Through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and recreation of knowledge in writing, learners found distinct benefits and noted their horizons had broadened. Given this effect, the open writing model using hypertexts is meaningful in that it forms a learning community that goes beyond a one-way feedback from instructor to student and instead nudges students to realize collective intellect. Moreover, it is meaningful in that it moves away from a top-down approach of the instructors passing down knowledge about writing and its rules, and towards a more proactive involvement by students in creating knowledge.

▸Keyword: Digital society, hypertext, open writing, collaborative writing, use of information, recreation of knowledge, writing education

## I. Introduction

2000년 이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미디어, 텍스트, 플랫폼의 상호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쓰기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글쓰기 공간은 점점 확대되어 개인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SNS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학에 진입하는 학습자는 이러한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세대로, 정보를 비선형적으로 접하고 미디어에 대한 에크프라시스에 능하다. 이는 디지털 문명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학습하고 일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으며, 나아가 사람들의 소통방식과 사유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

컴퓨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웹상의 글쓰기는 비선형적인 정보를 종합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디지털 독해력이다.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일방향적 의사소통 체계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면적이고 통합적 의사소통

• First Author: Hee-Young Lee, Corresponding Author: Hee-Young Lee
*Hee-Young Lee (writing@pcu.ac.kr), Dept. of Liberal Arts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 Received: 2018. 04. 23, Revised: 2018. 04. 25, Accepted: 2018. 04. 26.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PaiChai University in 2018.(2018A0062)

체계로 변화하는 양상이 심화될수록, 이차구술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독해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도 디지털 매체에 의해 구성되는 텍스트는 문자성에 의거한 서사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텍스트 밖의 독자들을 집단적 청중으로 연결시키는 구술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2] 이러한 서사들은 하이퍼텍스트를 통하여 수없이 흩어지고, 또 하나로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는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성을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컴퓨터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글쓰기가 더 필요해지는 현실 속에서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다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구술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새로운 글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머시 바우만은 기술과 뉴미디어 문식성이 야기한 변화가 현재 교육 및 제도적 환경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3] 그리고 권터 크레스는 멀티미디어와 다중 양식이 혼성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디지털 맥락 안에서 각종 제약들을 조정하며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였다.[4]

본고에서는 컴퓨터 하이퍼텍스트가 가지는 주요 특징을 비선형적 정보 구성과 저자와 필자의 협력적 담론 구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웹상에서 생산된 텍스트들의 장르는 하이퍼텍스트에 의해 해체되고 경계가 옅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문식성 기술을 익히기를 요구한다. 그렇기에 본 글쓰기 교육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를 익힘으로써 갈수록 복잡해지는 담론 속에서 학습자가 효과적인 전략과 기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쓰기 교육은 오늘날 필요한 다중방식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 II. Hypertext in the digital era

디지털 매체와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읽기와 쓰기 활동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했다. 선형적 읽기가 강조되었던 문자 텍스트보다 접근이 쉽고 개방적이며 자유롭게 변모할 수 있는 비선형적 하이페텍스트의 등장은, 기존의 읽기와 쓰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틀을 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전통적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더 이상 변형이 불가능한 고정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텍스트의 읽기에서는 텍스트를 선형적으로 읽고 본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그리하여 정전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했다. 하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구축된 글쓰기 공간의 하이퍼텍스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결되는 과정에서 변형되고 재창조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형태는 '읽기'만을 요구하던 문자 언어의 범주를 넘어서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의 관여를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언어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전적 텍스트가 가지고 있던 지위와 규범은 해체된다. 이러한 글쓰기가 발생하는 공간은 테크놀로지적 공간에 물질적 속성, 문화와 관습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필자는 해당 공간에 접속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개인에 내면화된 언어적 관념을 기술적으로 배열하게 된다. 볼터는 이러한 글쓰기공간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였다. 첫째, 제도화된 미디어 플렛폼에서 이루어지는 재매개, 둘째, 텍스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환유, 셋째는 사운드, 이미지, 동영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에크프라시스이다.[5]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연계하며 글쓰기 공간을 구성하는데, 이는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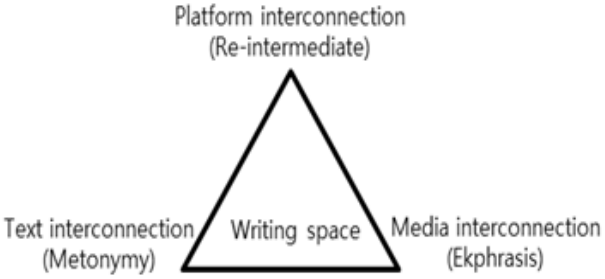



Fig. 1. A triangle of the writing space[5]

이러한 디지털 글쓰기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공존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웹상의 새로운 텍스트에는 문자 뿐 아니라 영상과 소리도 존재한다. 텍스트는 이제 혼자 존재하지 않고 여러 장치들과 연결되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잠재적 다른 텍스트와 공존한다.[6] 이러한 하이퍼텍스트의 비확정성은 독자의 위치를 전복시켰다. 독자는 저자의 텍스트에 새로운 정보를 더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저자에 필적하는 위치로 올라섰고, 이로써 디지털 매체 속의 저자는 저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글쓰기주체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협력적 글쓰기가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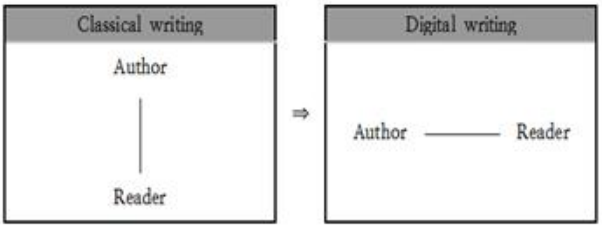



Fig. 2. A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reader

<Fig.2.>에서와 같이 전통적 글쓰기 환경에서 수직적 관계로 설정되었던 저자와 독자의 관계는 디지털 글쓰기 환경에서 수평적 위치로 전환되었다. 저자들과 독자들은 디지털 공간의 하이퍼텍스트와 댓글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완한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는 지적콘텐츠의 불확정

성을 담보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것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하이퍼텍스트가 가지는 특징을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글쓰기 교육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III. The need for a new writing education model

인지주의 글쓰기는 글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자의 사고체계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다.[7] 글쓰기과정을 일종의 문제해결과정으로 보고 구상하기, 작성하기, 검토하기라는 정해진 순서의 인지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모범적 모델을 상정한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 전 과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점검'의 개념을 통해 필자의 글쓰기 전략을 구체화하고 또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글쓰기 목표에 도달한다고 보았다.[8]

물론 실제 글쓰기 과정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복합적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적 글쓰기가 원칙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쓰기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회귀적 과정이라는 사실은 글쓰기 교육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필자의 사고 과정에 따른 글쓰기 피드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합의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같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순환적 쓰기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일률적인 글쓰기 강의 목표와 내용, 교수자 대비 많은 학생 수, 짧은 시간 등이 원인이다. 또한 교수자의 피드백은 종종 학습자에게 강력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오히려 독창적인 인지과정을 소거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이 의미가 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미디어와 텍스트, 플랫폼의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구성된 글쓰기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무한정한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해야한다. 즉 끊임없이 제공되는 정보를 종합하고, 그것을 새롭게 구성하는 코딩능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스마트폰의 발달은 하이퍼텍스트의 능동적 활용이 필수적인 사회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교육은 기술이 글쓰기 공간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으로 하여금 텍스트가 생산, 공급, 수용되는 과정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이 능동적으로 하이퍼텍스트를 접하고, 정보를 검색 ·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 종합한 정보를 활용하여 타자와 교류하고, 그를 통해 다양한 시선을 공유하는 법 역시 경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읽기, 종합, 상호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조 할 수 있어야 한다.

## IV. Hypertext-based open writing model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상의 하이퍼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개방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위키백과>이다. <위키백과>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문서의 생성과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 사용자가 모두 수평적 위치에서 하나의 텍스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위키백과는 새로운 집단지성으로 평가받고 있다.[7]

필자는 이러한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을 활용한 개방적 글쓰기 교육 모델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Table 1. System Environment

<table>
<tr><td colspan="2"></td><td></td><td>Step 1</td><td></td><td>Step 2</td></tr>
<tr><td colspan="2" rowspan="2">Teacher</td><td rowspan="4"></td><td>Issue raising</td><td rowspan="2">→</td><td>Introduction how to use proper information</td></tr>
<tr><td>Information utilization</td><td>Watching information (Integration information)</td></tr>
<tr><td></td><td>Step 3</td><td></td><td>Step 4</td><td></td><td>Step 5</td></tr>
<tr><td rowspan="2">→</td><td>Discussion modulator</td><td rowspan="2">→</td><td>Introduction how to organize knowledge</td><td rowspan="2">→</td><td>Introduction of writing methods</td></tr>
<tr><td>Debaters</td><td>Searching additional information</td><td>Writing knowledge recreation</td></tr>
</table>

1단계에서는 글쓰기 화제를 결정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모둠 안의 구성원들은 교수자가 제기하는 키워드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이 때 수집되는 정보는 무한한 범주 안에 파생되어 있는 비선형적인 정보들이다.

정보의 수집이 끝나면 2단계에서 교수자는 올바른 정보 활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인터넷 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마인드맵이 효과적이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보를 조직하고, 특정 의미로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또한 교수자는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지켜야하는 글쓰기 윤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3단계에서는 하나의 키워드에 대하여 각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상호 토론을 실시한다.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동료들의 반응을 종합하여 새로운 텍스트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교환 과정은 하이퍼텍스트의 개방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습자가 모두

수평적 위치에서 하나의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협력적 글쓰기 과정인 것이다.

4단계에서는 토론과정에서 합의된 하나의 텍스트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적합한 정보를 고르는 일이다. 2단계의 정보 수집이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성에 기인한 무한대의 정보 수집이었다면, 4단계의 정보 수집에서는 3단계에서 합의된 텍스트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로, 디지털 독해력이 강조된다. 이 때 찾은 정보들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주석의 형태로 텍스트를 확장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 5단계는 기존의 지식체계에 주석을 붙여 재창조하는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해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골라 새롭게 조직하는 편집하는 구성력과,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코딩 능력이 강조된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가 창작의 범주에서 벗어나 재해석을 기반으로 한 확장의 영역으로 넓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V. Application of a hypertext-based open writing model

필자는 앞에서 제시한 하이퍼텍스트성 기반 개방적 글쓰기 모델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강의 시간에 3주에 걸쳐 적용해보았다. 대상 학생은 68명이었고, 4명이 하나의 모둠을 구성하였다.

1주차에서는 1단계 과정을 실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글쓰기를 둘러싼 수사적 상황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문제는 '청춘의 의미'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을 객관화된 시선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개인적 성찰 전에 교수자가 청춘과 관련한 키워드와 관련한 지식인들의 생각,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청춘, 젊음, 꿈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게 하였고, 모둠 간 해당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모둠 간 자유로운 토론 진행 후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2주차에는 2~4단계 과정을 실행하였다. 먼저 1주차 과제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기 위하여 각자 마인드맵을 그렸다. 키워드는 '젊음의 탄생'이었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사유를 줄기를 따라 그려나가도록 하였다. 이때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은 사유의 논리화이다. 자유로운 발상이 우선이지만, 그러한 발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학생에게 주지시켰다. 마인드맵을 완성한 후에는 구성된 학습 모둠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교수자는 참여에 소극적인 학생들에게 적극적 경청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말하기 편안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였고, 사유 과정에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았다. 학습 모둠에서 학습자들 간 생각을 충분히 공유한 후에는 그것들을 종합한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상호 토론을 진행하였다. 아래 <Fig. 3.>은 수업시간 학생들이 그린 마인드맵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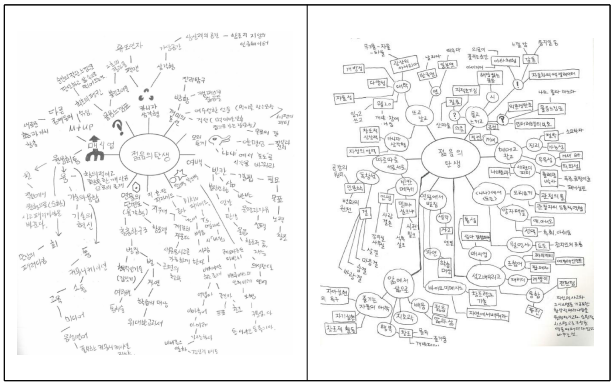


Fig. 3. Mind map

학생들이 상호 토론을 진행한 후 작성한 텍스트는 그것을 작성한 학습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채 학급 내에서 공유하였다. 해당과정에서 하이퍼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비선형적이고 개방적인 정보교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담론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개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임을 학생에게 강조함과 동시에 그렇기에 디지털 상의 글쓰기 예절도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해당 과정에서 자유롭게 텍스트를 읽고 포스트잇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의견 공유는 하이퍼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비선형적 정보교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익명성에 기반하여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였고, 텍스트 작성자들은 그것들을 취사선택하며 자신들의 텍스트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했다. 동료 간의 피드백을 모두 완료하고 난 뒤, 글을 최종 구성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 오는 것을 과제로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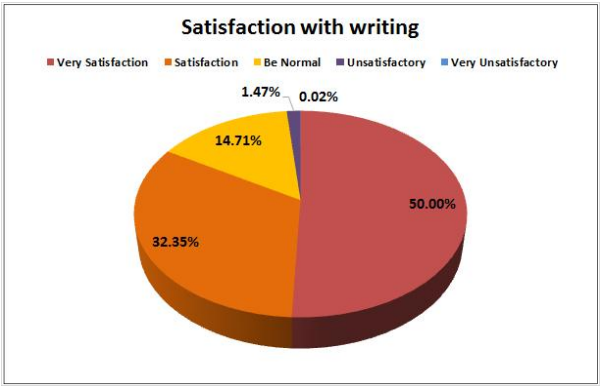
3주차 수업 시간에는 5단계 내용을 진행하였다. 동료 간의 피드백, 추가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최종 텍스트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최종 텍스트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구성된 한 편의 글이 아니다.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한 개방적 글쓰기의 형태는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단락과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주석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글이다. 이런 글은 복사, 수정, 배포가 자유로우며, 정보의 재조직을 통한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재창조될 수 있는 새로운 지성적 글쓰기이다.

글쓰기 과정을 마친 후 인터넷 상의 집단 지성의 결합물인 위키백과를 사례로 들어 무한한 정보의 확장이 새로운 콘텐츠와 지식을 만들어냄을 설명하고, 해당 글쓰기과정이 디지털 맥락 속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임을 학습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집단지성을 단순히 소비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적 태도로 새로운 지적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

하이퍼텍스트성 기반 개방적 글쓰기 교육 과정을 마친 후, 학습자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글쓰기 과정에 참석한 68명이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2%에 해당하는 학생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만족의 이유로는 하이퍼텍스트 기반 개방적 글쓰기가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력적 쓰기 활동을 통해 집단지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매우불만족과 불만족을 선택한 학생은 3명이었고, 다른 학습자와의 소통 및 협력의 과정이 어려웠음을 이유로 꼽았다.

Table 2. Satisfaction with writing




하이퍼텍스트 기반 개방적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 쓰기 활동에서 가장 뚜렷하게 알 수 있는 효과는 총 3가지이다. 학습자들은 다른 학생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며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큰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정보를 찾아 조직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사유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해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주관적 응답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라 하이퍼텍스트 기반 개방적 글쓰기에 대한 객관적 효과 입증은 추후 과제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VI. Conclusion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는 멀티미디어 언어를 바탕으로 개인과, 집단, 사회가 소통하고 있다. 현대인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글쓰기 공간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글쓰기 교육 방법을 요구한다. 기존의 글쓰기 교육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지위, 학급당 학습자 수의 과밀화, 짧은 시간, 획일화된 교육 내용 등으로 인해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인 규범으로 작용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규격화된 글쓰기를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사유를 방해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성 기반 글쓰기 교육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테크놀로지 글쓰기 공간에서 하이퍼텍스트는 다양한 경로로 읽히고 변형되고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감각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언어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 교육은 학습자의 다중방식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의미하다.

본고에서는 정보의 활용, 조망, 교류, 보완, 쓰기의 5단계로 이루어진 컴퓨터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교육에는 다섯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 협력적 글쓰기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조망하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독해력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은 4차 산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기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넷째, 지식을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고, 그를 기반으로 창의적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학습자들의 자발성에 기인한 글쓰기 교육 방법으로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모델은 학습자에게 규범으로 작용하는 교수자의 일차원적 피드백을 벗어나, 학습자 간 능동적으로 지식을 탐색하고 집단지성을 발현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해당 교육방법이 대학 교육현장에 좀더 내실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해당 교육이 학생들의 집단지성 형성과 의사소통 능력 강화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어떠한 지에 대해 연령대별, 전공별 정량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 REFERENCES

[1] Meyers, Eric M, and Erickson. Ingrid, and Small. Ruth V, “Digital literacy and informal learning environments: an introduction,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Vol 38, No. 4, pp355-367, 2013.

[2] Kim Yang hee, “Present Condition of University Writing and Class Management Plan using ultimedia Text”, Field Stud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10, No. 1, The Association of Field Stud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pp321-356, 2016.

[3] Bauman, Marcy L. “The Evolution of Internet Genres.” Computers and Composition, 1999.
[4] Gunther R. Kress, “Literacy in the New Media Age”, Routledgr, 2003.
[5] Bolter. J. D., “Writing Space: The computers, hypertext, and the remediation of print”,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0.
[6] Shim. Eun Jin, Yun. Hak Roh, “New Hypertext Writing : about digital culture theory”, Foreign Literature Studies, Vol 26, Hankuk Universiti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Literature Studies, pp33-48, 2007.
[7] Linda Flower, and Heinle Publishers, “Problem- 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 Paperback, 1997.
[8] Lee. Hee young, “A Study on convergence writing of expressionism and cognitivism : focusing on writing education in college liberal arts”, Pai cha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6.
[9] Cho. Won Hyong, “Textuality of Wikipedia Documents”, Vol 30, Textlinguistics, The Textlinguistic Society Of Korea, pp237-262, 2011.

## Authors

Hee-Young Lee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from PaiChai University, Korea, in 2009, 2011 and 2016, respectively As of 2018, she is a professor of Dept Liberal Arts Education at PaiChai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online writing education, writing correction and multidisciplinary writing.